

율장의 뿌리는 참회와 화합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⑧

주제 : 율장정신에서 본 종단의 제도 (10월 1일)
 법주 : 경성 스님 (중앙승가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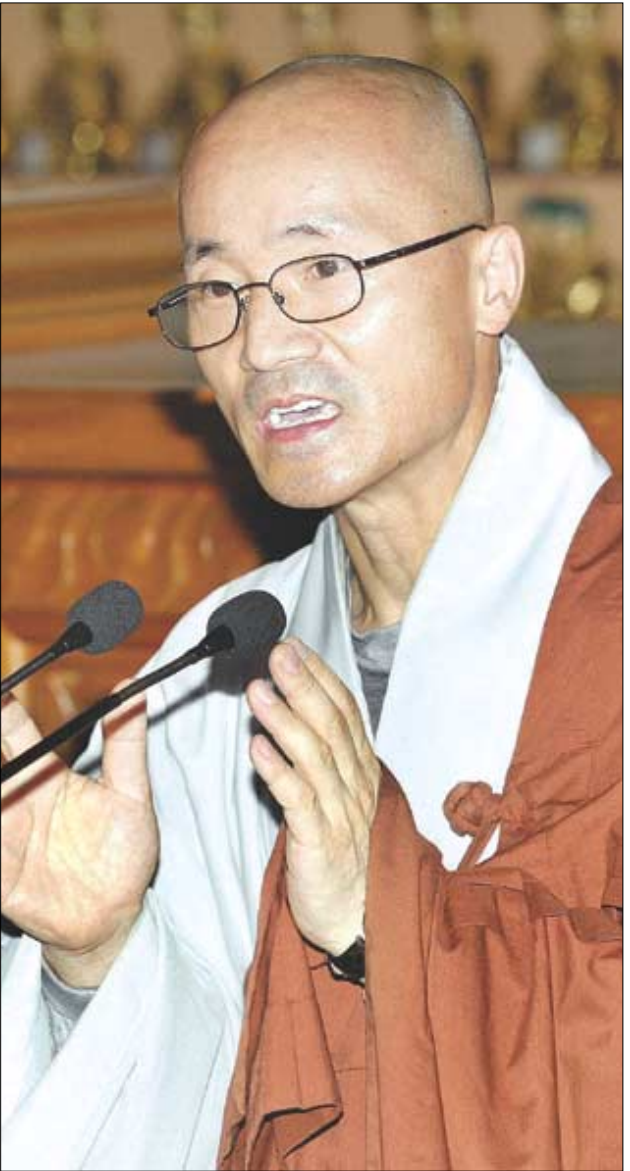
오늘 주제는 승단이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율장 정신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종단의 호계원 제도를 중심으로, 율장 정신의 어떤 것을 여법히 계승하고 있고, 사회법과 가깝게 다가가면서 본래 율장정신의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남의 말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오악의 견해(견해, 견타, 번뇌탁, 중생탁, 명탁)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 사

리, 화합하는 대정으로 의역하는데, 승가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받아 지키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즉, 계율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승가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율의 본래 의미는 번뇌의 발동을 막아 번뇌의 단멸(斷滅)을 얻으려는 생활규정입니다. 특히 승가는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하고 널리 전법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을 받아야 하며, 비난을 조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장치로 250계 348계

심으로 정학(定學)을 심습하고 이 정(定)에 의해 해학(慧學)을 성취하는 것으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지악수선(止惡修善, 악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소승불교 입장입니다. 대승계는 소승의 형식적인 계율에 반대하여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대승계의 근본은 외적 율법에 두기 보다는 내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대승계율 사상은 소승불교의 계율 사상이 면밀하고 또, 보다 율법적인 행위의 제한적 조건인데 비해 소승불교의 이론에 치중하고 비실행적인 요소들을 간소화한 삼취(三聚)로 요약됩니다. 계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설율의계(律儀戒)와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심선법(善善法)이며, 일체중생을 위해 연민하는 마음이 요익유정(饒益有情)입니다. 이 계율은 지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위의 규범이지만 금지의 방향으로 제어하는 것을 중요

가 갈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마는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승단의 화제도입니다.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와 같은 승가의 규칙적인 행사를 비롯해 새로운 의결 사항이나 정사(靜事)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해 실행하는 모든 회의를 가리킵니다. 갈마는 대중에게 안건의 찬부(贊否)를 확인하는 회수에 따라서 단백(單白)갈마, 백이(白二)갈마, 백사(白四)갈마로 나뉩니다. 단백갈마는 대중에게 고지만 하고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일상의 행사나 포살, 자자 등과 같이 결정적이고 이의(異議)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경미한 내용을 공지할 때 사용됩니다. 백이갈마는 백이(白二)의 제를 말함을 한번 선언한 후 갈마설(戒磨說, 의제에 관해 찬부를 확인하는 말)도 한 번 묻는 방법이며, 백사갈마는 한 번 동의의 제출하고 세 번 찬반을 반복해서 청취하는 것입니다. 수계나 승잔죄(僧殘罪)



승단의 위계와 규율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대사회지만, 승단의 모든 법은 참회와 화합을 뿌리로 삼는 율장정신을 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성 스님.

범계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지니지 않고 진정한 화합 불가능

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서 이탈되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 자율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는 율장의 참된 의미요, 모습입니다. 또, 수행자가 악을 그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을 행하고 자비와 이타를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보다 더 강하고 굳건하게 결합할 때 보다 더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율장과 사회법 제도를 비교해 보면 저항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회법제도는 범계예방을 위한 처벌을 말하지만 율장은 참회를 통한 청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은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드러낼 때 받아지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의식을 한번 깨쳐내고 벗어날 때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환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종단제도도 결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소 민주적인 다수결의 제도를 운용한다면 율장이 제정되면서 만들었던 근원적인 의식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참회하는 지악의 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작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승가제도

에 대한 참회 등 승단의 중요행사는 거의 백사갈마에 따릅니다. 특히 승잔죄에 대한 참회에 백사갈마가 시행되는 것은 계율을 범한 수행자의 진정한 참회를 통해 대중의 화합으로 사면과 복권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계자는 마땅히 스스로 대중앞에 나가 고백하도록 하고, 반드시 고백한 후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대중이 결의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악행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점차 중죄로 발전할 것 같은 경우는 구출(驅出)갈마, 가책(呵責)갈마, 의지(依止)갈마, 차부지백의 가(遮不至白衣家)갈마 등의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구출갈마는 속가에 출입하면서 위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재가의 정진(淨信)을 잃게 되고 나아가 승잔범을 범하게 될 것으로 염려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오가(阿)행(汚)家(惡)行한 지역으로부터 떠나서 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책갈마는 소승이나 승사를 하여 다른 비구들의 다름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일정한 복사(服事) 참회하고 벌칙을 이행하는 것을 부과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지갈마는 거듭하여 승잔죄를 범하거나 범하기 쉬운 행위를 하는 비구를 선지식 등에 의지시켜



다소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계율과 각종 제도. 그러나 그 연관성을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다.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견 의견 등이 난무하는 혼란함을 견타(견타)라고 합니다. 이런 견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지계정신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계를 받고, 계율수행대법회와 같은 법회를 통해 잘못된 특선적인 자기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알므로써 서로 이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율장의 화합정신입니다. 승단의 모든 제도는 율장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 교단인 승가는 화합중화합하는 무

500계 등의 조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의 목적은 규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계율의 실천을 통해 출가자나 재가불자들이 항상 담당하고 편안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상의 어떤 조건에서도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은 원래 부처님이 정한 조목입니다. 불멸후, 제1결집에서부터 몇차례 결집에 이르는 동안 계율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차가 생겨 상좌부, 대중부의 근본 2부를 비롯하여 20부파로 분열되었고 유력한 부파들은 대중소이한 각자의 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과(佛果)를 이루기 위해 수행자가 계학(戒學)을 성취하고 다시 계학(戒學)을 중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교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와 마련 탁월한 제작, 섬세한, 깨끗한 개금처리와 우수성 카드로그 필요하신 문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함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속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대리점은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때어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은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오행속뜸기

■ 제품의 특징

-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속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속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치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 증대 됨.
- 인체의 접촉되는 부위가 살리온 재질로 되어 있어 끈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기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들에 의해 개발

의료용구 제조업자가 제 19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O7019-3001
 식품안전인증 : 제 030642호
 식품첨가물 : 제 0316970호
 식품안전인증 : 제 0328990호
 의료장비등록 : 제 0344295호
 의료장비등록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1호
 KCI(KCI) 인증번호 : 제 017289호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속뜸기, 음양속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필요할 및 시구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립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면담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속뜸기/음양속뜸기 제품구입문의 02)521-6353~4

(예)을 용서해 복권시키는 일 등 모든 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승가의 전통적인 의결방식인 갈마는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찬성을 전제로 진행되는 회합을 지향하는 운영 회의제도입니다. 갈마의 목적은 첫째,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 계율을 법한 구성원의 진정한 참여며, 셋째 대중의 화합으로 사면과 복권을 피하는 것이며, 넷째 중죄를 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갈마의 진행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대중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도인데, 이런 의결 방식은 현 종단의 회계원법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회계원은 종단의 사법기관입니다. 초심 회계원과 재심회계원으로 구성되며, 초심

측면에서 볼 때 회계원법은 갈마의 현대적인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마나 회계원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경미한 법계 행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4바라이죄나 5역죄 등의 중범죄는 이미 수행자의 신분과 자적을 상실한 것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대방등대집경>의 부처님과 범비사리의왕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마와 회계의 목적도 범제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제자의 진정한 참회를 통해 대중의 지혜와 화합으로 사면과 복권을 피하며, 중대한 법계를 예방하고 경미한 법계를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원 제도가 문제는 있습니다. 회계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체 대중의 참여로 이뤄지는

심호계원도 9인중 7인이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되고 역시 2/3가 동의하면 가결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출장에서 만장일치제는 대단한 화합정신이며, 승진죄에는 엄격한 갈마의식이 있습니다. 만일 가까이에 스님이 없을 때는 20인 이상의 승단을 찾아가야 하며, 병이 들어 참석 못하면 병자를 들것에 싣고서라도 참석하게 하고, 병실을 벗어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갈마대중이 병실로 모두 옮겨 갈마를 하는 엄중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출장정신은 합부로 가볍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출장정신은 화합으로 대변된다 할 수 있습니다. 화합은 배려와 이해심에서 출발합니다. 갈마의 정신 또한 화합을 원칙으로 이뤄지며, 화합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범제자를 향한 배려와 이해심입니다. 종단의 회계제도 또한 회계원 전체의 화합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초심과 재심을 통해 피회제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장정신에 담겨있는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면 모든 대립과 반목을 풀리치고 진정한 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체의 성숙과 발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화합의 극치인 화합의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경성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하여 해충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자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과 출원을 졸업했으며, 해인사와 범어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파계사에서 성우 율사로부터 계맥을 이었다.

현재 해인사 회람대에 머물며 조계종 소청심사위원과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교수사, 중앙승가대학 강사이다.

갈마, 구성원 전체 참여·찬성이 운영원칙 회계원 다수결의 방식 출장정신에 어긋나

회계원에서는 호법부에서 제소한 징계에 관한 사항과 중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제소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재심회계원에서는 초심회계원을 거쳐 재심에 상소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이런 초심과 재심회계원의 제도는 출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백사갈마, 즉 두 번 세 번 대중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갈마제도에서 범제자에 대한 논의에 백사갈마를 취하는 것은 대상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도반이기 때문이며, 출장의 기본 정신이 처벌이 아니라 화합이며, 참회를 통해서 청정한 대중의 무리와 함께 수행하고 탁마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회계원제도도 이런 취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했다는 긍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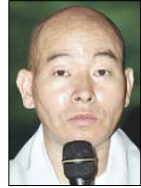
갈마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회계원제도 심의하는 모든 사항에서 승가 대중 전체가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승법을 채택하면서 일정한 법랍과 연령을 갖춘 대덕이상의 출장과 정규에 밝은 일당백의 해안을 갖춘 선지식이 승가대중을 대표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 회계원은 7인, 재심회계원은 회계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참여하게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출장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원참석 전원동의로 갈마가 성립되는 것에 반해 초심 회계원은 7인 중 5인이상 참석하면 성원이 이뤄지고, 2/3가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재



참가 대중들은 경성 스님의 논리적인 강론에 빠져들며 계율의 근본정신을 마음깊이 새겨 넣었다.

재가 포교사의 활용 방안과 승단과의 관계는?



지현 스님
(승광사 출원장)

질문1 : 조계종의 재가 포교사가 8,0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뜻 재가포교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교사의 포교일선 포교방안과 출가승단과의 관계에 대한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성 스님 : 본사나 각 암사를 소개하는 불교문화행사로서의 활용방안을 비롯해 병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어린이·청소년 법회, 사찰수련회 등 포교사가 필요한 요소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호스피스나 불교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의 한 부분을 열어준다면 불교를 잘 아는 진정한 불자가 봉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스님의 역할을 중개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교사가 포교당을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심각한 불교의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염려됩니다. 포교사들은 스님의 인가와 종단의 제도적 장치에서 각자에게 맞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종단은 포교사들이 제도적 장치 안에서 나름대로 불교를 전파하고 홍보하는데 책임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질문2 :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기가 증폭되어가는데 불교 교양대학 등 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좀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체계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 포교원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질문1 : 심의 횡수를 두 번 세 번 거듭한다는 것만으로 회계원이 갈마의 현대적인 응용 계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갈마는 정치적 성격을 갖지 않는 종교적 의례였는데 회계원에서는 교단의 정치적 행정적 힘을 둘러싼 분규같은 법계 행위를 다룰 때, 정치적 성격을 갖는 사법적 행위가 됩니다. 회계원 제도에 의해 이런 법계를 종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나 방식, 기구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경성 스님 : 종교적인 의례로 전원합의 전원찬성이라는 갈마 제도가 회계원법에 온전히 이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회계원 제도로서는 모두가 공감하기 어렵기에 중앙종회라는 상위의 결기구가 있습니다만 역시 하나로 뜻을 엮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로회의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여법한 갈마를 통해 아직 정신적인 계승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젊은이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관계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로회의는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 종단제도가 출장 정신에 맞춰 수정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2 : 출장정신에는 '화합정신' 외에 좀 더 다양한 정신이

포교원의 인가 하에 무수히 설립되는 교양대학이 종단이 만든 하나의 기본 안을 준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성 스님 : 먼저 불교를 배우려는 재가신도들이 질을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좋은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잘 만들어진 교양대학 운영방안과 기본 교재를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수 장치가 부족한데, 스님이 주관하고 포교사가 관여해 도심 포교당을 분원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살이나 자자와같은 여법한 계율에 대한 적극적인 법회의식이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3 :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생명나눔운동으로 장기기증 운동의 확산이 예상됩니다. 종단의 제도로 생명나눔운동을 확산시켜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살림의 공덕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성 스님 : 꺼져가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제도적 장치를 원시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지수화중 공의 상태로 가기 이전에 대사회적으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생명나눔을 실현하는 시선기증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마 정신이 선거제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권력에 대해 방학하는 '출가 정신, 탈권력 정신'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만장일치의 정신 제도를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권력추구자들의 패어플레이를 위한 제도인 선거를 갈마 정신이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요?

경성 스님 : 청정과 화합, 범제자에 대한 배려, 능동적인 지계 정신을 출장정신에서 사상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율에 대한 의견과 관점을 논의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시과, 이론 등을 정립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출가정신 탈 권력정신은 대중을 위해 수행 봉사한다는 정신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마에서는 만장일치를 주장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승단의 모든 제도가 확정되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패어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선거제도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 발표문에서 '소승의 형식적인 계율' '소승불교' '소승계'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본을을 전적으로 소승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경성 스님 : 소승계, 소승불교라는 것은 대중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을 그치는 지지계를 수행 않고 작지계인 대승법망 계로 뛰어넘거나 집착한다는 것은 1층, 2층이 없는 3층 누각을 지으려는 처사와 같습니다. 지지와 작지를 수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비와 이타를 동시에 구현하는 보살도라고 생각합니다.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갑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갑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보이차 전문점
가, **서영보이**, 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瑞榮普洱

진단보이 · 진도이롱 · 절반이 · 이룡차 · 대홍포 · 화차 · 인삼이롱

서영보이, 개명 기념
인삼이롱 3품 2만원 한정판

茶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